

競馬 騎手服飾 연구

權美世*

* 대구 미래 대학
패션·코스튬 디자인과 교수

이 논문은 서울마주협회와
한국마사회의 협조로 씌어졌음

목 차

- I. 서론
 - II. 경마 문화
 - III. 경마 기수복색
 - 1. 외국 기수복색
 - 2. 한국 기수복색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현대에 와서 레저스포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마용 기수들의 복식을 연구하려 한다.

경마할 때 기수가 입는 복색을 Horse Owner's Colours 혹은 Racing Silk라고 한다.

Owner's Colours란 馬主에 소속한 기수가 입는 옷을 말하는데, 상의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었으므로 Colours란 말이 쓰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기수服色이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마란 경주거리, 부담중량, 상금 등 정해진 조건하에서 2두 이상의 말을 달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 고객이 돈을 걸어 즐기는 성인 레저를 말한다. 또한 경마는 Sports of Kings라고도 불리는데 현대 경마가 태동하던 16세기 전후에 경마를 즐기던 계층은 왕족을 중심으로 한 상위 귀족계층이었으며, 단순히 두 마리의 말이 출전하여 벌이는 정도의 시합경기 수준이었지만 스포츠란 명칭을 부여해서 경마의 최초 별칭으로 불렸다.

기수복이란 기수들이 입는 특정 의상을 말하며 기수란 경주용 말에 기승하여 말을 타고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경주용 말에 기승해야 하므로 관람객이 멀리서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색깔이 뚜렷해야 하며, 말을 탈 때 안전하고 편리하여야 하는 등 기승에 적합한 의상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경마에 출주하는 말에 기승하는 騎手들의 복식은 부담 중량이 가벼워야 하고,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騎手 각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된 상의를 입고, 출주마 번호마다 정해져 있는 특정 색깔의 승마모를 쓰고, 승마바지를 입고 승마부츠를 신고 채찍을 든다.

경주용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마주(馬主)라고 한다. 마주는 단순한 경주마의 소유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사랑하는 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소유의 경주마가 유명한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기도 한다. 마주에게는 엄격한 자격요건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마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경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구에서 발달한 경마문화에 의하면 마주들은 마주 개개인에 따른 기수복색을 가지고 있고, 등록되어 있는 마주만의 고유의 복색을 가져야만 한다. 즉 마주가 말을 출전시킬 때는 마주 고유의 복색을 입은 기수가 마주의 경주마에 기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수복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그 기본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른 몇 개의 디자인과 색깔의 조합이다.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마주들이 기수복을 정해서 등록하지 않고 기수들이 기수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된 기수복을 등록하여 입고 있다.

현재 복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 세분화된 특정의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때에 본 연구는 기수복이란 특정집단의 특정의상에 착안하여 이를 서구의 기수복의 발생과정과 현재의 기수복, 그리고 한국의 기수복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II. 경마 문화

경마는 세계공통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betting을 하는 말의 경주이다. 말이 힘차게 달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있으므로 많은 관람객을 모은다. 근대경마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빠른 말을 많이 생산해 내는데 기여하였다. 경마를 시행할 때에는 말의 주인인 馬主와 경마용 말을 타는 騎手が 있고 일반 관람자가 있다.

세계 경마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말을 이용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말이 가진 속력에 주목하여 경마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제2회 제전에는 4두 마차 경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32년 후 처음으로 기마경주가 나타났다. (사진 1) 로마 경마의 복식으로 모자이크 그림이다. 머리에는 두꺼운 헬멧형 모자를 쓰고 녹색 튜닉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보호를 위해 피혁제품을 둘렀다.¹⁾ 그리하여 경마가 오락으로써 보급되어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리스문명을 받아들인 고대 로마사람들은 활발하게 경마를 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2세시대(BC 3)에 미드필드에서 경마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잔디위에서 직선거리를 달리는 것이었으나 헨리8

1) R·ロングリン 著, 『競馬の世界史(The History of Horse Racing)』, 日本中央競馬會弘濟會 1976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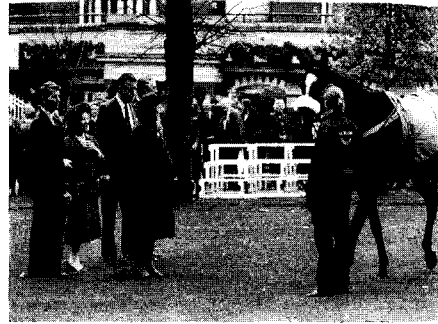
시대 경마장은 곡선 마장으로 개정되고, 1574년에는 엘리자베스 I 세 여왕이 구로이든 경마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1711년 윈저궁전 가까운 Ascot에 앤 여왕이 경마장을 개설했다. 에스콧트 경마장은 단 하나의 왕실 경마장으로서 유명하다. 영국의 유명한 Ascot 경마장에서는 지금도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馬主인 영국여왕을 비롯한 로얄 웨밀리들이 패셔너블한 큰 모자를 쓰고 성장을 한 모습으로 참가하고 있고 동반한 남자들도 성장을 하여 경마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하면서 잔치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영국 상류계층의 모자패션은 로얄 Ascot 경마장에서 시작한다는 전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 왕실은 대대로 왕·여왕이 경마와 깊은 관계가 있다. 현 엘리자베스 II 세 여왕과 모후도 마주이므로 말 생산과 경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2) 지금도 Ascot 경마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수상자에 시상하고 있다. 경마팬인 엘리자베스II 여왕은 스스로 기수가 되어 실제로 경주를 하기도 하였다. 1964년 장소는 Ascot 경마장. 거리는 1마일로 6두 출주했으며 여왕 스스로 기수복을 입고 경주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다. 이유는 이 경주는 비공개였다.²⁾

²⁾ 韓國馬事會 「세계의 경마, 유럽·오세아니아 편」, 1997, P. 32.

엘리자베스 II 여왕은 서울 마주협회의 명예 회원이기도 하다.



(사진 1) 로마시대의 기수복



(사진2) 엘리자베스 II 여왕과 그 모후가 말을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유명한 경마장은 켄터키주 루이빌 처칠다운즈 경마장인데 이 경주는 Kentucky Derby라고 하며 1875년 창설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999년 올해 125회가 되었다. 5월 첫째 토요일에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경마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구 한말의 개화기부터였다. 학생들의 나귀경주, 또는 기병경마 등의 새로운 풍물이 선을 보였으나, 완전한 근대경마로 발전하지 못한 채 한일합방을 맞았다.

1922년 서울에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함으로써 최초의 경마시행체가 등장하였다. 그 후 1933년에 비로소 조선경마령이 시행되면서 경마는 법규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고, 경마법인에 의한 시행만을 인정하는 공인경마가 되었다. 1945년 8·15 광복으로 경마의 주도권은 비로소 한국인에게 넘겨져 한국마사회와 순수한 한국인 馬主, 한국인 騎手, 조교사에 의하여 경마는 새출발을 하였다.

이렇듯 국내외의 경마는 제2차대전 이후 급속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마필의 수요가 격각됨에 따라, 세계의 경마는 마필의 개량이나 군수 자원의 확보와는 별 관계가 없이 대중오락성과 국가 稅收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의 경마현황을 보면 현재 한국에 두 개의 경마장이 있다. 과천에 35만평의 넓이를 가진 경마장이 있고 제주도에는 조랑말 경주가 열리는 일반 경마장이 있다. 과천에 있는 서울 경마장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고 있다. 하루평균 11만명의 인원이 입장하며 입장료는 900원이고 하루 마권판매액은 350억원이 넘으며 계속 입장 인원과 마권판매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경마는 1995년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1월에는 박태종 騎手가 인도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3월에는 마사회가 경마 및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IABR)에 가입, 한국경마의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 또 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알루미늄 편자가 해외 특허를 취득했다. 또한 제주도 경주마 육성목장을 개장했다. 9월 개장한 이 목장은 국산마를 생산, 경주마가 되기 위한 조기 교육을 전담함으로써 국산마의 자급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8월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 국산마 대상경주가 신설 됐다. 여름에는 야간경마가 열려 시민들의 가족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III. 경마 기수 服飾

현대는 말이 일하는 말과, 스포츠로서의 말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 시기로서, 말의 용도에 따라 기마복식이 뚜렷이 구별되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의복 재료의 발달은 기마복식에 있어서 스판덱스 등 기능적인 소재의 사용을 가져오게 되었고 구성상에 있어서도 기마하기에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심미적인 측면도 고려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승마는 특히 상류층의 고급 레저 스포츠로서 이용됨으로 인해 기마복식은 승마가 지닌 고품격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장으로 黑色이나 적색의 자켓과 흰 셔츠를 입고, 승마부츠와 벨벳을 씌운 승마모를 쓰는데 이는 안전은 물론 승마복이 상류계층으로서의 품위있는 엄격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경마에 출주하는 말에 기승하는 騎手들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승마복과 같으나 기수의 특성상 중량이 가벼워야 하고,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騎手각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된 스텐칼라의 Jumper Style의 상의를 입고, 출주마 번호마다 정해져 있는 특정 색깔의 승마모를 쓰고, 흰색 승마바지를 입고 승마부츠를 신고 채찍을 든다.

이 연구에서는 기수복 중에서도 상의와 모자만을 말할때는 服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외국 騎手 服色

지금 일반적으로 입혀지는 최초의 기수복색은 1515년 영국 헨리 8세때로 알려진다.

3) Gayle C. herbert,
A History of racing
silks, The Horse of
Corrington,
Lexington,
Kentucky, 1993,
P.10.

1669년 Tuscany 공작이 영국 Newmarket에서 시행된 경주를 보고, Jockey(기수)복식을 묘사한 것을 보면 "다른 색깔의 타페타를 입고……" 라는 표현이 있다.

이후 이것이 영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7, 18C 경 찰스 2세와 앤 여왕 시대에 기수복색은 확립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기수복색으로 입혀지고 있다.³⁾

경주마의 조교사는 "Training Grooms"라고 묘사되었다. 그들은 마주에게서 받은 crest-embossed 단추를 달고, 모자를 썼다. 경주에서는 색깔이 들어있는 silk 혹은 satin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리고 100여년간 모자(cap)는 검정 벨벳을 씌운 헬멧형 모자를 써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모자색과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특히 모자는 경주용 색깔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1762년 10월 4일 馬主들의 모임인 Jockey club의 멤버들이 영국 Newmarket에 모여서 마주와 기수들의 색깔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Cumberland 공작은 Purple Grafton 공작은 Sky Blue, Devonshire 공작은 Straw Colour, Northumberland 공작은 Yellow, Kingston 공작은 Crimson, Ancaster 공작은 Buff, Bridgwater 공작은 Garter Blue이다.

이후 경주가 스포츠맨과 관람자에게 흥미가 높아감에 따라 馬主들은 경주용 복색에 관심이 높아갔다.

1971년에는 영국 Jockey club에서 기수복의 색깔과 디자인을 표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영국 Jockey club 기수복색 규정에 따르면 1. BASIC COLOURS, 2. JACKET MARKINGS, 3. SLEEVE MARKINGS, 4. CAP MARKINGS의 4가지로 나뉘어진다.

BASIC COLOURS에는 White, Grey, Pink, Red, Maroon, Light Green, Emerald Green, Dark Green, Light Blue, Royal Blue, Mauve, Purple, Yellow, Orange, Beige, Brown, Black이 있고, JACKET MARKINGS(사진 3)과 SLEEVE MARKINGS(사진 4), CAP MARKINGS(사진 5)에 대한 디자인이 정해 있어서 이를 기본으로 색깔과 디자인을 순열 조합하여 마주의 기수 복색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는 스텐칼라의 Jumper Style의 Jacket 디자인만을 말하며, 그위에 "To Horse Racing... the most colourful sports in the world"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색깔의 조합인 것이다. 바지는 흰색 승마용 바지를 입고 승마용 장화를 신는다.

1991년 10월 경마와 생산에 관한 파리 국제 협약이 있었고, 세계 49개국 57개의 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 제 9조에 의하면, 복색에 사용되는 기본색, 색상 및 색의 배합에 있어 지나친 다양화를 막기 위해, 마주 복색과 복색 무늬에 대한 기준이 합의 되었다. 단, 당협약 이전에 등록된 복색은 그대로 인가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정마(遠征馬)의 경우는 그 해당마필이 조교된 나라에서 그 마

주가 등록된 복색으로 경주에 출주하는 것으로 한다. 참가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한 41개국이다.

						
			4" centre strip	2" vertical strip	Alternate 2" vertical stripes	4" hoop
8 Hoops	9 Halved	10 Quartered	11 Sash	12 Cross Belts	13 Chevron	14 Chevrons
						
Alternated 2" hoops	Vertically only sleeves reversed		4" diagonal stripe from left shoulder to right hip	4" diagonal stripe from each shoulder	One large "V"	Alternate 2" chevrons
15 Check	16 Diamonds	17 Spots	18 Stars	19 Cross of Lorraine	20 Diamond	21 Star
						
1"-1 1/2" squares	4" vertical diamonds	Spots 2 1/2" in diameter	Stars 3" in diameter	10" solid cross	10" vertical diamond	10" solid star
22 Disc	23 Inverted Triangle	24 Diabolo	25 Large Spots	26 Triple Diamond	27 Hollow Box	
						
10" solid disc	10" triangle	Triangles of same size	4" spots from right shoulder to left hip	6" vertical diamond	10" box	

(사진 3) Official Designs for Racing Colours (Jacket)

1 Plain	2 Armlet	3 Hooped	4 Striped
5 Chevrons	6 Seams	7 Stars	8 Spots
9 Halved	10 Diabolo	11 Diamonds	12 Check

(사진 4) Official Designs for Racing Colours (Sleeves)

1 Plain	2 Hooped	3 Striped
4 Check	5 Spots	6 Quartered
7 Star	8 Diamond	9 Stars
 4" centre to apex	 4" centre to apex	
	10 Diamonds	

사진 5) Official Designs for Racing Colours (Cap)

영국 왕실에서 입는 기수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엘리자베스 II세 여왕에 소속된 기수는 몸체는 보라빛이며 단추와 소매장식에는 황금색 수실로 장식 되어있고, 소매는 빨강색이고 모자는 정수리에 무늬가 있는 검정색이다.(사진 6, 7)

엘리자베스II세 여왕 모후의 기수복은 몸체 앞부분에 황금색 선이 있는 하늘빛 Jacket이며 모자는 무늬가 있는 검정색이다(사진 8). 그리고 유명한 부호이며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던 마주인 Aga Khan의 기수복은 녹색 모자와 녹색 Jacket인데 양 어깨에 폭 5cm, 길이 10cm 정도의 빨강색이 덧대어 디자인 되어있다.

경마가 시행되고 있는 서구 여러나라나 호주, 홍콩 등도 이상과 같은 기수복을 입는다. 다만 일본은 기수복색은 세계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모자만은 단일색인 검정색을 쓰고 있다.

경마시 경주 출마표에는 반드시 말과 기수의 복색이 소개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명 경주에서 우승한 기수의 기수복은 박물관에 전시하며 경마장 내에 기수복을 조각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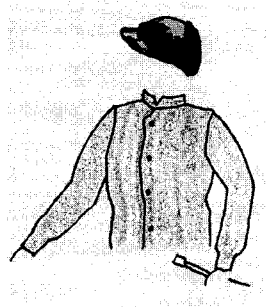
영국의 여왕이 소속되어 있는 자키클럽에도 기수복을 입은 기수의 큰 초상화가 걸려 있다.



(사진 6) 엘리자베스 II 여왕 소속 기수복



(사진 7) 엘리자베스 II 여왕 소속 기수복



(사진 8) 엘리자베스 II 여왕 모후 소속 기수복

2. 한국 騎手服色

한국의 기수 복색을 살펴보면 외국의 기수복색과 많은 차이가 있다. 처음 경마가 시행되었을 때 기수복색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측면으로 한국의 기수복색은 매우 자유롭고 독특하며 다양하다. Jumper Style의 Jacket과 승마바지, 승마용 장화, 승마 모자는 세계의 기수복과 같으나, Jacket의 색깔 및 무늬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수 자신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다. 1995년 한국 마사회에서 발행한 "기수복색 업무 편람"을 보면 한국 마사회법 복색 등록에 대한 관계 규정이 있다. 이중 제 19조에 보면

제 19조 (복색등록의 제한) 복색등록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복색등록은 기수 1명에 1종으로 한다.
2. 복색에 표시하는 색은 3도색 이내로 한다.
3. 복색에 사용하는 색은 선명하여야 하며, 본회가 정하는 적(赤)·청(靑)·황(黃)·자(紫)·녹(綠)·다(茶)·백(白)·도(桃)·흑(黑)·수(水)의 10종으로 한다.
4. 면허가 취소된 기수의 복색은 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95. 7. 20)
5. 이미 등록된 복색과 동일한 복색 또는 유사한 복색은 등록할 수 없다.(신설 '91. 4. 17) 라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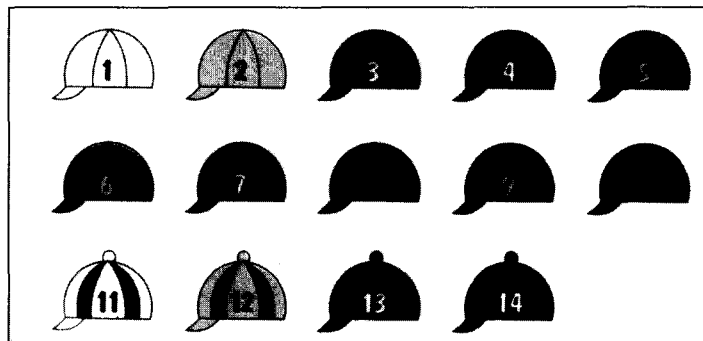
요즈음은 국제 규정 복색을 미리 신임 기수에게 보여 줌으로써 디자인에 참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마주는 기수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기수는 기수협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에 승마모는 검정색이다. 마번(馬番)에 따라 모자 색깔을 정하여 그 번호에 따른 색깔을 덧 씌우고 있다. 한국의 서울경마장에서 경마에 출주하는 말은 14마리아내로 하는데 각번호에 따른 모자색을 보면 1번은 白色, 2번은 黃色, 3번은 赤色, 4번은 黑色, 5번은 靑色, 6번은 淡綠色, 7번은 古銅色, 8번은 粉紅色, 9번은 紫色, 10번은 水色이며 11번부터 14번 까지는 두가지색이 들어가는데 11번은 白色과 水色이며 12번은 黃色과 水色, 13번은 赤色과 水色, 14번은 黑色과 水色이 (사진 9)과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한국 기수는 기수 본인 고유의 복색을 똑같은 것을 몇 벌 가지고 있고(사진 10) 언제나 어느 경주에나 출주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말이 출주할 때 기수의 복색을 보고 어느 기수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어 기수가 보다 Star화 되는 부분은 있다. 현재 서울 기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수는 85명 정도이며 한국의 유명 기수로는 김명국, 박태중, 안병기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는 馬主의 馬에 따라 기수가 다른 기수복을 입을으로써 馬主에게 초점이 더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마주들은 아름다운 기수복을 입은 기수가 힘차고 빠른 자신의 말에 기승질주하여 우승하는 기쁨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자신의 말이 늘 우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경마가 시행될 때 볼 수 있는 출마표에는 출마표 책 맨 끝 페이지에 기수들의 복색과 출주 번호별 모자색이 색깔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다. 출마표에는 경주별 출주

하는 말들의 이름과 馬番, 기수이름, 마주이름 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대상경주 일 때는 대상 경주에 참가하는 기수들의 복색이 馬이름과 馬番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한국 기수복 콘테스트가 1996년 5월 19일 한국 마사회 주최로 열렸고 본인이 준비 및 심사를 담당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디자이너들로서 비교적 전문그룹이 많이 참가하였음에도 좋은 작품은 나오지 못하였다. 이는 경마 문화와 기수복 발생 전통의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콘테스트가 경마의 꽃인 기수를 Star화 하는데는 크게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진 9) 한국 기수들의 出走 馬番別 모자색



(사진 10) 한국의 기수복 중 일부

IV. 결론

경마에 기승하는 기수복을 경마가 성행 발전한 서양의 기수복의 발생과정과 현재 서구의 기수복 그리고 한국의 기수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기수복은 경마문화가 서구에서 발전하였듯이 서구에서 말을 소유하고 있는 馬主인 영국 왕실 등 귀족들이 만들어서 그들의 기수에게 입혀온 것으로 본문에서 밝혔듯이 전통이 있는 몇 개의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기수복은 1971년 이후 기본이 되어있는 디자인과 색깔을 가지고 순열 조합 시킴으로써 고유의 기수복색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수복은 옷 Style과 10가지 색깔만 정해진채 기수들 마음대로 디자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요즘 새 기수가 등록할 때 국제 규정의 기수복 디자인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에서 공유하는 기수복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복식연구에서 세분화된 특정의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이때 기수복이란 특정의상을 연구함으로써 특정의상에 대한 연구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기수복에서 일반 의상디자인의 idea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한국에서 새로 나올 새 기수들과 언젠가는 외국처럼 마주들이 소속 기수들에게 기수복을 디자인 해 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권미세. 「韓國騎馬服飾文化研究」. 博士학위논문
2. 서울마주협회. 「馬主」. 1995. 2. ~ 1996. 7. 격월간
3. ----- 서울마주협회. 「달리는 말(Owner's Gazette)」. 1996. 8. 월간~
4. 韓國馬事會. 「굽소리」. 한국마사회, 1984~ 월간
5. ----- 「月刊 경마세계」. 한국마사회, 1990~ 월간
6. ----- 「말이야기」. 한국마사회, 1994.
7. ----- 「고삐」. 한국마사회. 1994 월간
8. ----- 「韓國馬事會半世紀史」. 한국마사회, 1993.
9. ----- 「韓國競馬六十年史」. 文善社, 1984.
10. ----- 「세계의 경마, 유럽·오세아니아 편」. 1997. 2.
11. -----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경마」. 한국마사회 홍보실. 1998. 12.
12. ----- 「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 협약」. 한국마사회 재결실. 1992.
13. ----- 「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 협약」. 한국마사회 기획조정실(대외협력팀). 1998. 12.
14. 日本中央競馬會 編. 「競馬百科」. 昭和 51년 入江 副貴子 大日本印刷株式會社
15. R·ロングリン 著. 「競馬의 世界史(The History of Horse Racing)」.
日本中央競馬會弘濟會 1976
16. Fit for a Queen inside the Queen mothers racing world, Pride of place place(UK) : Specialist Sports publishers, 1995.
17. Furth, Elizabeth : "Vision of Show Jumping." Springfield Books, England : west yoakshire, 1993.
18. Gayle C. herbert: A History of racing silks. The Horse of Corrington, Lexington, Kentucky, 1993.
19. McBane, Susan : Dougals-Cooper, Helen. Horse Facts, NewYork : Barne & Noble Books, 1993.
20. Mettler, John J. : JR., D.V.M. Horse Sense : Courier ninth printing, 1994.
21. Richard Pitman : The Royal mews. Mary Stewart-Wilson, 1991.
22. Roberts, Peter : The Complete Horse, Italy : Piron, 1994.
23. Sean Magee : The channel four book of Racing : Sidgwick & Jackwon, 1995.
24. THE JOCKEY CLUB, Annual review,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Horse Owner's Colours
(Horse racing silks)

Mi-Sae, Kwun*

* Dept. of Fashion &
Costume Design
TAEGU FUTURE
Colleg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Horse Culture and the Horse Owner's colours(Horse racing silks or Jockey's costum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jockey's costume of western as well as Korean'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breeding and racing" in order to avoid too much variation between basic colours, grades of colours and colour combinations, a standard for owner's colours and jacket design has been agreed.

Racing colours registered before the present agreement will however be allowed.

Every horse coming from abroad runs in the registered colours of its owner in the country where the horse is trained.

There are unique Korean jockey's costume. They are going to change jockey's costume to Owner's colours.